



Market Index / 16일

코스피지수 ▲ 2091.87 +9.39	코스닥지수 ▼ 674.42 -0.37	유가(WTI, 달러) ▼ 59.58 -0.63	환율(원)	1USD 1198.92 100¥ 1109.96	살매 1157.68 팔매 1071.78	1EUR 1351.72 1CNY 179.90	살매 1298.98 팔매 162.78
--------------------------	-------------------------	------------------------------	-------	------------------------------	--------------------------	-----------------------------	-------------------------

동문시장 판매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행정, 소비자 통행 안전·운송로 확보 위해 설치 상인 “시장 상황에 안 맞아… 라인 재정비해야”

제주시 동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판매 가이드라인이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동문시장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판매 가이드라인 설치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시장 내 일부 구간에 노란 페인트로 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상점 전열대 및 상품 등이 넘지 못하게 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행정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의 상점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

는 데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행정대집행도 시행했지만 이후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또 다시 라인을 넘어 영업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인 A(57)씨는 “처음 가이드라인이 설치됐을 때는 모든 상인이 라인을 잘 지켜 고객과 상인들의 물품 이동을 위한 운송 수단 등이 다니기에 무리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를 어기는 상점이 점점 늘어나더니 서로 경경이 붙어 현재 길이 현저하게 좁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 B(61)씨는 “가이드 라인을 지키고 싶어도 안 지키면 다



16일 제주시 동문시장 일부구간에는 노란색 페인트(흰색 표시)로 판매 가이드라인이 설치돼 있지만 대다수의 상점이 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른 상점과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선을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행정명령 도로여서 법적으로는 가이드 라인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맞다”며 “시장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법적 조치가 아닌 지도·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서귀포 중심 아파트 분양시장 살아나나

6월 기준 3.3㎡당 1234만원
지난 5월보다 100만원 ↑

제주 분양아파트의 가격이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도 소폭 나아지며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제주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234만원으로 지난 5월보다 100만원가량 올랐다. ㎡당 30만 3000원이 오르면서 전국 9개 도 단위에서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당 분양가 1295만원 보다는 61만원이 낮다.

이와 같은 분양가 상승 요인은 서귀포지역의 중문 e편한세상 등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와함께 6월중 도내 분양가격지

수도 159.9로 5월의 147.0보다 8.80% 성장했다. 다만 지난해 6월의 167.7에 비해서는 4.62% 감소했다.

6월중 분양세대수는 280세대로 5월 99세대, 지난해 6월 68세대보다 많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 의하면 6월 제주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82.7로 5월 76.9와 4월 64.2 등에 견줘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특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소비자심리지수의 변화로 도내 부동산경기의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분석한 ‘7월 제주지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의 전망치가 45로 전월 61.9에 비해 16.9p나 하락했다. 이처럼 40선으로 추락한 HSSI 전망치는 2017년 10월 분양경기실사지수 발표 후 가장 낮아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극기기자

제주산 채소류 내리고 과일류는 오름세

돼지고기 가격도 소폭 줄어
관광성수기 맞아 호전 기대

최근 판매되는 제주산 농축산물 가운데 채소류와 돼지고기 값은 하락세인 반면 과일류는 오름세를 보이며 회복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제주농협 등이 조사한 최근 일주일간(6.30~7.6)의 주요 농산물 판매동향에 따르면 채소류의 경우 감자와 무, 부추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이 내렸다.

감자는 kg당(이하 생략) 2170원으로 전주의 670원 보다 3배 이상 올랐고, 무는 307원에서 410원으로 33.4%

상승했다. 부추도 1106원에서 1421원으로 28.5%가량 가격을 올렸다. 다만 무(20.3%)와 부추(13.1%)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대가 낮다. 양배추(66.5%) 취나물(43.7%) 풋고추(36.1%) 쪽파(30.5%) 대파(30.0%) 콩잎(23.7%) 양파(23.0%) 깻잎(22.9%) 등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제주산 과일류는 계절성 출하량이 많은 하우스감귤을 제외하고 대부분 좋은 가격대를 유지했다. 하우스감귤 가격은 이 기간에 6407원에서 6154원으로 낮아졌다. 농협의 선제적 계통출하(69.6%)를 통한 가격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 폭락은 미미할 것으로 감지된다.

블루베리(96.0%) 수박(38.3%) 방울 토마토(28.0%) 등의 가격은 모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블루베리(72.9%) 수박(97.3%) 방울토마토(10.5%)의 가격은 모두 호전됐다.

6월중 제주산 돼지고기의 도축물량과 도축가격도 소폭 감소했다. 도축물량은 6만959마리로 전월 대비 7450마리가 줄었고 도축가격도 239원이 내렸다. 평균가격은 573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17원과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출하량 및 가격대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9월 평균가격은 6152원~6973원이다. 백극기기자

조달청 시행 공공 공사 8월부터 손보 가입 의무화

8월부터 조달청 시행 공공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공사로 발생한 침하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8월부터 직접 설계·시공 관리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차 배상책임 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을 적용, 민원 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되면 설계(공법)변경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제3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도심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 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문의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 관리구역의 계약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극기기자 haru@ihalla.com



16일 중국 광저우와 심천에서 제주스타상품 기업 6곳을 대상으로 중국 진성바이어 35개사 초청 현지 수출상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스타상품, 중국 현지서 수출상담회

중국 진성바이어 35곳 초청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강화

제주도가 중국 현지에서 제주스타상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16~18일 중국 광저우와 심천에서 중국 진성바이어 35개사 초청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화장품, 식음료 등의 제주 스타상품 6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상담회를 통해 제주상품을 적극 홍보하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대한부티산업진흥원, 유엔아이제주, 헬리오스 등 화장품 분야 3개 기업과 신한애코(홍해삼

젤), 제주자연식품(유자차), 제주팜이십일(프루텍 감귤초코) 등 식음료 분야 3개 기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에서 제주스타상품을 대상으로 중국 내 최대 라이브방송 플랫폼인 ‘화지아오(花椒)’를 활용한 왕홍 생방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25~26일에는 왕홍을 초청해 경제통상진흥원 판매장에서 제주스타상품 판매전을 열기도 했다. 왕홍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중국 크리에이터를 말한다. 중국내 많은 팔로워(콘텐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전자기기 판매 시작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면세점에서 전자기기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앞서 관세청이 지난

5월 도내 지정면세점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전자기기를 새롭게 포함함에 따라 온라인면세점 전용 상품으로 미용 마스크 및 면도기 등 14개의 전자기기 상품을 입점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관광공사는 상품별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여는 한편 온라인 면세점에서 35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휴대용 USB 선풍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지정면세점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온라인으로 주류를 예약 구매했을 경우 가격을 2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하귀2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서흥동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유수암리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연동1.5름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은 1억5200만	토산리(급매)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와흘리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고산리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	--	--	---	--	--	--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북로 606, 3층

제주향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원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오동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 한림읍 용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복

동부공인중개사 010-2800-4595 064-747-5115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하례5.16도로동축과수원 8856㎡ 11억원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기50㎡ 5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해안동 생관림(목장) 맹지28,842㎡ 6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신촌 2중주거지역 대 157㎡ 1.7억
-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억원
- 우도하고수해수목정원인 10,323㎡ 12.5억원
- 수신동 제주지인근 카페음용관광호 620㎡ 3.1억
- 유수암 2차선 번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수신동 제주지인근 카페음용관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4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오리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본 광고는 사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섬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오리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광양 한국병원 소리섬 보청기